

교양미 · 지성미 · 개성미 · 자연미

나 운 영

요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행을 좇아 따라가는 이가 많다. 길을 가다가도 좀 색다른 옷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당장 그것을 입고 싶어져서 너도나도 같은 옷을 사 입으면 그것이 즉시 유행이 되나 보다. 그런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 옷이 내 체격에 잘 맞는지, 내 나이와 어울리는지, 내 신분과 거리가 멀지나 않은지를 일단 생각해 봐야 하니까 말이다.

즉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우리 속담처럼 남의 것이 내 것보다 무조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외국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나간 옷과 꼭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 자존심이 상해서 — 당장 집으로 되돌아가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같은 옷을 세 사람이 입고 자랑스럽게 — 보라는 듯이 — 길을 활보하는 광경을 흔히 보게 되는데 이 얼마나 꼴불견이나 말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미용'도 마찬가지로 나는 생각한다.

첫째로 '헤어스타일'의 경우 자기의 얼굴 모양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요즘 유행을 따르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자기 얼굴의 허점을 적절하게 커버해 주는 스타일을 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의 얼굴과 나이와 신분에 맞게 택할 줄 알아야 한다.

둘째로 '아이샤도'의 경우 자기의 눈 크기와 모양은 물론이고 두 눈의 간격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르도록 해야 할 것을 유행이라고 해서 낫도깨비 같거나 혹은 실컷 두드려 맞은 권투선수처럼 하고 다녀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피부색과 잘 어울리는 색을 택해야 할 것이 아닌가.

셋째로 '귀고리'의 경우 너무 크거나 길거나 복잡한 것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나는 이것을 '고드름'이라 놀려대는데 아무리 좋은 귀고리라도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법이고, 남들이 다 달고 다니는 것보다는 흔하지 않은 것이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 밖에도 분을 바른대거나 입술을 그릴 때에도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는 미용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교양미 · 지성미 · 개성미 · 자연미 같은 말이 먼저 떠오른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올바른 미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그 여성의 미용에 대한 취미를 보면 그의 교양, 신분, 직업, 취미, 가문, 성격 등등을 어느 정도까지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혀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다. 성인군자의 얼굴을 보라. 성직자, 예술가, 학자들의 얼굴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즉 마음이 깨끗한 자는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법이다. 반대로 마음이 악한 자는 아무리 열심히 화장을 한다 해도 얼굴이 아름답지 못하다. 웬지 부자연스럽다. 특히 어린이들의 얼굴은 아름답기만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마음의 아름다움이 얼굴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그야 마음이 악한 사람도 화장을 잘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상쇄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 어디엔가 조화가 안되는 점이 발견될 것이다.

관능미 · 백치미를 자랑하는 짙은 화장이나 지극히 기교적인 화장은 사람의 눈을 현혹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어서 언젠가는 탄로가 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20회 이상이나 가졌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장을 한 멋진 신사(?)가 서너 명씩 짝을 지어 나타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손님을 가장한 손놈(?)들이었다. 회비도 안 내고 훔친 책을 옷 속에 네댓 권씩 감춰 놓고 유유히 사라지는 상습 책도둑인 것이었다. 물론 남자들이니 화장을 치밀하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차림으로 나타났으니 누가 의심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일을 당한 뒷이야기를 종합해 들으면 뭔가 다르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마음이 악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이 몸밖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법,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일이다.

도대체 유행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유행을 의식적으로 외면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유행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유행이란 한동안 떠돌다가 그만 사라져 버렸다가도 먼 훗날 되살아나곤 하는 것이니 나처럼 유행을 외면하고 살아가거나 또는 뒤늦게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새로운 유행에 앞장을 서게 되는 묘한 경우에 처하게 될 때도 있으니 유행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일례를 들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넥타이를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일편단심 늘 같은 것만을 매고 다니기 때문에 요즘 유행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즉 넥타이의 폭이 넓어졌는지, 다시 좁아졌는지 도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할 일 많은 세상에 넥타이에까지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러다 보니 유행이 여러 바퀴 돌고 돌아올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따라서 어떤 때에는 최근 유행의 물결을 탈 때도 있으니 말하자면 우연히 일치라고나 할까...

유행을 외면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부질없이 유행을 질질 좇아 따라다닐 수만은 없으니 나의 개성, 나의 주체성을 살리려면 때로는 유행을 멀리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유행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부질 없이, 정신없이 유행 따르려는 것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용도 이제는 외국 사람을 그대로 흉내 낼 때는 지났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즉 외국 사람 얼굴에 잘 어울리는 미용법이 있듯이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 얼굴에 가장 잘 맞는 새로운 미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할 때가 왔다.

동양 여성의 아름다움, 그중에서도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새로운 미용법은 없을까. 내 민족,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정, 내 가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는 적절한 화장을 했을 때만이 교양미·지성미·개성미·자연미가 은연중에 풍길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격월간 태평양 미용, '92. 5·6월호〉